

NEWS

2025년 9월 5일 금요일

광주 BRT 도입... 도심 교통체계 개선 박차

광주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5·18민주광장 경기장서 열려

국내의 최정상급 공사들이 5·18민주화 운동 최후항쟁지에서 쏜 화살이 민주·인권·평화의 울림으로 세계에 메아리친다.

4일 2025 광주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 컴파운드·리커브 종목 개인·단체·혼성전 각 금메달 결정전 등 주요 경기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조직위는 개최 도시의 광주를 대표하는 장소이자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인 5·18민주광장에서 펼쳐기로 했다.

1980년 5월 항쟁의 주요 무대였던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은 장소 자체로서도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울림'을 상징한다.

대회 슬로건 '평화의 울림'에는 '평화의 땅' 광주에서 과거에 명중한 화살의 울림이 전 세계에 퍼지는 '평화의 메아리'가 된다는 의미가 담겼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신군부 폭압에 맞서 민주·평화·인권을 염원하며 도청으로 모인 대학생·시민들이 인종민주대성회를 연 항쟁의 산실이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선 시민군이 상항실 등을 설치한 항쟁 근거지이며, 5월27일 계엄군 최후진압 당시 마지막까지 분투한 5·18 대표 사적지다.

옛 전남도청은 계엄군 헬기 사격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는 '광주 1번지' 전일빌딩과 항쟁의 주요 무대인 금남로를 마주하고 있다. 민주광장~금남로 일대는 매년 5월17일이면 가장 큰 항쟁 기념 행사인 5·18 전야제가 열린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를 통해 조명된 옛 전남도청 일대가 세계인에게 아픔과 희망을 전하며 다시 한 번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5·18민주광장 특설경기장은 최근 외벽 복원 공사를 마친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 분수대, 전일빌딩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다.

광주국제양궁장 내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은 7일부터 대회 마지막날인 12일까지 매일 5·18민주광장에 모여 실력을 겨룬다.

각국 선수들이 활 사위를 당길 사대는 광장 중앙 분수대와 인접한 곳에 설치된다. 과거를 제외한 삼면에서 사대를 둘러싼 관중석은 4개 구역으로 나뉜다.

한편 이번 대회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76개국·선수 731명이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는 47개국·445명이 출전한다. 정송기 기자 sky@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대책... "시민 불편 최소화"
간선급행버스체계, 주요 추진 현황·향후 방향 등 공유

광주시가 4일 시청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이번 용역은 광천권역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는 그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와 계

획안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자치구, 시의회, 광주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해 BRT 시설의 기본 구상, 신규 노선 후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배치, 도심 교통체계 개선 방안 등 여러 의견을 참고해 기술적 완성도와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도심 남북축 대중교통 인프라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을 위해 용역을 진행해 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7일 첫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제1차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에 반영된 광주 백운광장(옛 대동고)~농성역~광천사거리~경신여고~광주공고(8.67km)를 잇는 '백운-매곡 BRT' 노선의 개발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신규 노선 발굴까지 모색하고 있다.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은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과 도심 혼잡 완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향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인 BRT는 광주 남북축에 신축성·정사성 등을 갖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송기 기자 sky@gwangnam.co.kr



“소각장 행정 절차 중단 피해는 광주시민”

박병규 구청장, 정치권·시민사회 책임 있는 결단 요구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사진)이 '위장전입' 의혹으로 행정 절차가 중단된 삼가동 자원화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박 구청장은 4일 SNS를 통해 “행정 절차 중단으로 사업이 멈춰지면 2030년 직매립 금지 시점까지 시설을 가동하지 못한다”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걱정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고 반문한 뒤 “시민들은 매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위장전입 사건에 있지 않다. 위장전입은 그 자체로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된다. 더 큰 문제는 광주의 쓰레기 처리와 직결된 자원화수시설의 운명이다”고 꼬집었다.



박 구청장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데, 이는 국가 차원의 불가역적인 일정”

이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자원화수시설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현재 광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혜와 용기, 책임 있는 결단”이라며 “정치인의 책무는 불편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책임 있는 정치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관계자들이 결승전 경기장을 설치하고 있다.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특설경기장에서 열린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무안국제공항 조기 개항·정부 지원 절실”

광주·전남 관광업계, 성명 발표... “지역 관광 무너질 위기”

광주·전남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운항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관광협회와 외식업지회, 숙박업지회 관계자 등 30여명은 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무안공항 조기 개항 촉구’ 성명 발표를 통해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관광업계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개항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일본·중국·베트남 등 국제선 노선 확대에 이용객이 30만명을 넘었지만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 이후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도 12월로 연기되면서 재개항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은 정상적인 공항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 관광업계는 공항 폐쇄로 교통 불편과 함께 생존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이들은 “무안국제공항 장기 폐쇄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닌 광주·전남 관광의 생존이 달린 일이다”며 “정부는 무안공항의 조기 개항을 책임질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불확실한 상황이 높은 관광업계를 위해 재개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신속한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업계 일동은 “무안국제공항을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명확한 조치 없이 방관한다면 지역 관광업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돼 지역관광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

산업재해 예방 인력 충원... 7급 공채 추가 선발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국가공무원 7급 공채제 응시시험이 추가로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행정직군 총 500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선발은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가 목적으

로 과학기술직군은 300명, 행정직군은 200명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5~19일 진행된다.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11월 15일,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 3차 면접시험은 3월 초 실시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공고된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직원과 고객,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노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금속창호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인증 및 특허

사회적기업인증서, 시설물유지관리 전문건설업등록증

공공기관 실적

- 목포시 수영정물정비사업 부분보수
- 전남체육고등학교 웨이트트레이닝실 벽체보수공사
-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교실 비탄보수공사
- 신안교육지원청 장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심향배수장의 보수공사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 보육실 인테리어공사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거문도등대 태풍피해 복구공사
- 무안군청 삼향고 북용교 교량난간 정비공사

노아건설(주)

전남 목포시 연산백련로 1번길 51 ☎ 061-285-6100